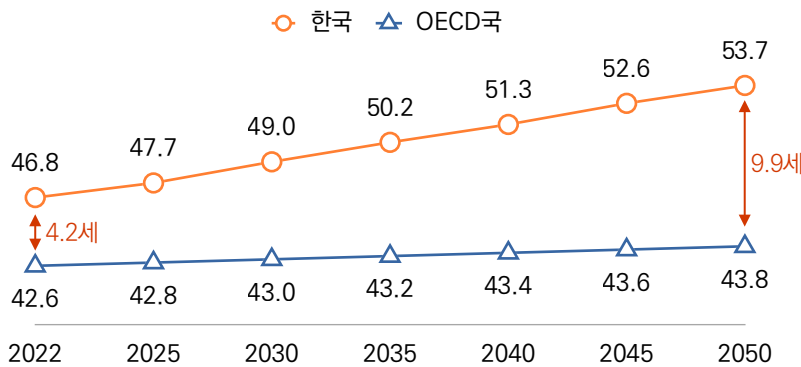




2050년 한국 취업자 평균연령 54세까지 높아져!

- ▶ 약 30년 후인 2050년 한국 취업자 평균연령은 어떻게 될까?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(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)에서 따르면 2022년 한국 취업자 평균연령은 약 46.8세이고, 성별·연령별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, 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은 53.7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.
- ▶ 이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, OECD 국가 평균 취업자 연령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격차가 2050년이면 9.9세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[그림] 한국 vs OECD국가 취업자 평균연령 전망 (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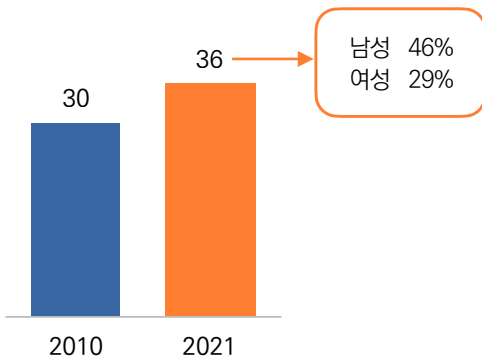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대한상공회의소, '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' 보도자료, 2023.07.21.

◎ 한국의 노인 경제활동참가율, 다른 나라 대비 매우 높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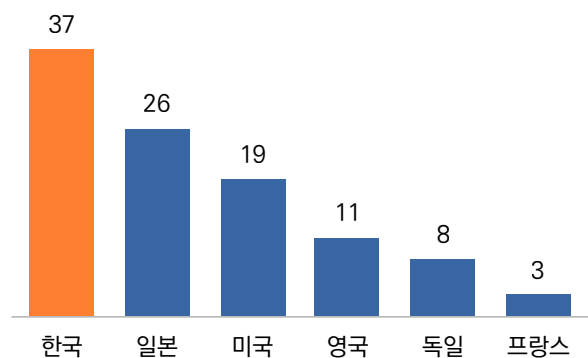
- ▶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떤 상황인가? 2021년 기준 36%로 과거 10년 전 대비 6%p 상승했고, 노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%로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.
- ▶ 국제노동기구(ILO)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(2022 기준)이 37%로, 주요 선진국인 일본, 미국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미국(19%)보다 2배, 프랑스(3%)와 비교했을 때는 12배나 높은 수치이다.

[그림]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(65세 이상, %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(2022), 경제활동인구조사

[그림] 주요국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(2020, 65세 이상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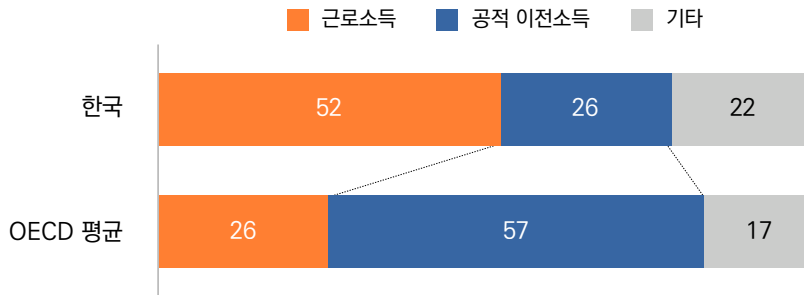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ILO(국제노동기구)STAT (2022)

◎ 한국 노인의 주요 소득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

- ▶ '한국과 OECD 국가 평균 노인 소득 구성비'를 살펴보면 OECD 평균은 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'공적이전소득(국가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수당, 연금, 급여)'이 57%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반해 한국은 26%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, '근로소득'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 그만큼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 이는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.

[그림] 노인 소득 구성 비중 (2018, 65세 이상)



*자료 출처 : OECD(2021), Pensions at a Glance 20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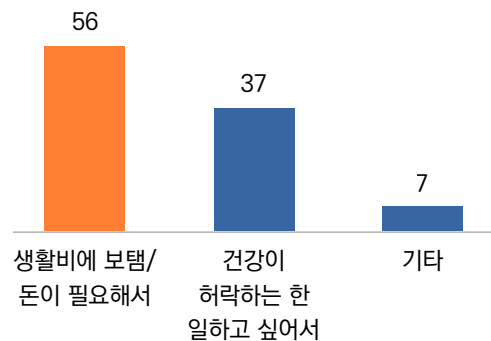
◎ 노인 노동자 일하는 이유, '돈이 필요해서' 56%

- ▶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들의 월 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, 전체 임금근로자(273만 원, 2021년 기준, 통계청) 대비 100만 원 정도 낮은 167만 원이었고, 주 평균 노동시간은 34시간으로 주 5일제로 환산하면 하루 7시간가량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- ▶ 65~7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가 이유를 물었더니 '생활비에 보탬/돈이 필요해서' 56%, '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'(37%) 순으로 나타났다. 노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.

[그림] 노인 노동자 근로 현황 (60세 이상, 2021년 기준)



[그림] 노동시장 참가 이유 (2022, 65~79세, %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', 2021.08. / 2022.05.